

30개 공공기관 CEO와 경영성과계약 체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성과관리 강화한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CEO와 경영성과계약을 5개 병원장과 복지미래재단 사무처장까지 확대하고 CEO별 경영성과목표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또한 평가결과 F 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도 예외 없이 해임하는 등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수준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7월4일 오후 2시30분 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금년새 경기발돋움노키스트라 예술감독,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등 공공기관 CEO 30명과 2008년도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경영성과계약은 지난해 24명에서 독립경영체제를 갖춘 경기 도립의료원 안성병원 등 5개 병원장과 신설된 복지미래재단의 사무처장을 추가하여 모두 30명으로 확대됐다.

경영성과계약에는 계약기간, 기관장의 경영목표, 평가기준, 평가에 따른 보상과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 주민들



7월4일 오후 2시30분 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금년새 경기발돋움노키스트라 예술감독,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등 공공기관 CEO 30명과 2008년도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이 알 수 있도록 일반 경영공시에 준하여 공시하도록 했다.

기관장의 경영목표는 경영성과 영역(70%)과 책임경영영역(30%)으로 구성된다. 올해 신설된 책임경영영역에서는 기관장의 리더십, 전략경영, 윤리경영, 고객만족, 공익경영, 성과관리 역량을 평가하도록 하여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S, A, B, C, F의 다섯 등급으로 나누

어 평가하고,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CEO에 대해서는 기본연봉 율액의 60%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10%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가결과 저조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기본연봉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F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도 재량의 여지없이 강제 해임하도록 하여 책임을 강화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박물관장, 미술관장 등에 대해서도 경영성과계약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아가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하여 일제히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해 그 실적을 평가할 바 있다. 평가 결과 영여마을 등 5개 기관장이 최고인 S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방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재추대된 김문원 의정부시장 밝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문원 의정부시장)는 6월30일 양주시 송암천문대에서 김문원 의정부시장 등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시장군수협의회를 갖고 후반기 회장단 선출에서 현 회장을 맡고 있는 김문원 의정부시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 제2차리에 머물고 있는 반장 활동보상금을 인상해 반상회 등 친체제 있는 주민협의체를 활성화 하는 방안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장애인 수수료 감면 규정 마련 등 주민복지 강화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공무원 1년 이상 국내 위탁교육시 결원 보충 허용, 친환경 인건 건축물 및 폐기물 처리시설 인센티브 부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인지세법



개정 등 총16건의 협의안을 심의해 이중 13건을 의결했다. 또 파주시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 도로법 개정안과 포천시 가평군 토사처리시설 무기성 노니 폐기를 분류 시설의 범률상의 이유로 보류 시켰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재 구리시가 추진중인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유치에도 긴밀히 협력을 하는 등 협의체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에서 의결된 13개 안건을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연임된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4년제 대학이나 공장 하나 못 들어오게 돼 있어 경기도 발전을 막는 수도권 정비법을 전면 수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시장은 지자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는 아무런 필요성 없는 제도라며 지역 위해 소신껏 일하고 중립을 지키려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 공천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는 민선 4기 이후 2007년6월 농업진흥지역 6천758ha를 해제했으며 올해에도 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진흥지역 1만4천274ha를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의 유형은 저수지 상류 500m 이상 미경지정리지역과 농업진흥구역과 관계없는 단독지대, 농업진흥구역과 연결되어 있는 미경지정리지역 등이다.

농업진흥지역 1만4천274ha 해제한다

포천시 752.5ha, 양주시 786.4ha, 연천군 15.2ha

경기도는 9월까지 해제고시를 완료하고 누락지역 발생시 12월까지 해제 조치를 완료하고 진흥지역 해제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농업인 교육시 홍보하기로 했다. 경기도 경지면적은 19만508ha이고 이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은 12만8천933.3ha에서 올 9월까지 1만4천

274.4ha를 해제하면 11만4천658.9ha가 남는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해당사항 없고 포천시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6천483ha중 752.5ha를 해제하기로 했고 양주시의 경우는 3천814ha중 786.4ha를 해제하고 연천군의 경우는 4천472ha중 15.2ha를 해제하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료급여관리사 방문 상담 큰 호응

의정부시 15개 주민센터 분기별 1회 방문 관리서비스

의정부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관리사가 15개동 주민센터를 매 분기별 1회 방문하여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건강정보 제공, 개인별 질환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근무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종합병원 등에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 간호사로서 의료상식 및 의료급여 제도에 정보가 부족한 수급권자에게 찾아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급권자의 약물 오남용과 과다 진료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고 선택병의원 및 1층 수급자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등 제도 변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는데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

동 순회 상담시 개별 상담을 통해 의료급여 사용일수 점검 및 연장신청 신청 안내, 선택병원 지정, 지역사회의 지원 연계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관리사가 15개동 주민센터를 매 분기별 1회 방문하여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건강정보 제공, 개인별 질환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거동 불편자 및 외상 환자인 경우 가정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재할 의지를 북돋아 주고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동별 2회씩 235명에게 심층상담과 가정방문 간호 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道民에게 사랑 받고 感動주는 의회상 정립

경기도의회 제7대 의회 2주년 맞아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

경기도의회(의장 양태홍, 구리2)가 2008년6월30일 제7대 의회 개원 전반기 2주년을 맞이했다. 2006년5월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된 119명의 도의회의원들은 같은 해 7월7일 '강력한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합작게 출발했다.

도의회는 2년 동안 제213회 임시회부터 제232회 임시회까지 20차례에 걸쳐 정례회 및 임시회 일정을 무난히 소화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의원 입법발의가 활발해지면서 집행부에 대한 도정견제와 대안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보며 제7대 개원 2주년을 맞이한 도의회의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이끌어온 의정단은 ▶의장 양태홍(한, 구리2) ▶부위원장 이우상(한, 평택3) 장경은(한, 성남5) ▶한나라당 대표의원 정금란(비례)이며 정당별 의석은 한나라당 104명, 통합민주당 1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

제7대 도의회의 제6대보다 15명 의원이 증가된 총 119명(지역구 108, 비례대표 11)으로 전국 지방의회 중 최대 규모로 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평택항권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FTA특별위원회, 주민의과사실대책특별위원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등 8개 특위가 구성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7대 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정례회 4회와 임시회 16회를 개최, 총 45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최초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이후 의원 입법 발의가 234건으로 전체 안건 중 51%가 차지할 만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는 집행부인 경기도와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

원회 17건, 기획위원회 39건, 경제투자위원회 21건, 자치행정위원회 33건, 교육위원회 22건, 문화공보위원회 21건, 농림수산위원회 15건, 보사여성위원회 34건, 건설교통위원회 18건, 도시환경위원회 29건, 특별위원회 22건이다.

제7대 유급제 시행이후 2006년까지 연간 120일 회기로 운영되던 것을 2007년부터는 140일로 늘려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2008년부터 도의회 의사운영을 효율적이고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개설했다. 예산·결산심의기간을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 연간회기를 11회에서 8회로 단축하고, 결산 심의·승인 시기가 지난해 6월에 심의하던 것을 올해부터 7월에 실시하여 결산 심의 준비기간을 1달간 연장하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일을 지난해 10월말 기준에서 9월말 기준으로 단축 조정되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 청원심사규칙 개정, 홈페이지의 관련 정보 개선의뢰·이관 배부개신 제도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열람하기 제공, 이용자 편의 위주로 의사일정을 개선하였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2007년 5월 본회의 의안 전자회의시스템을 설치하여 의안 발의시 생중방 송되는 메시지 전달은 물론 안건 의결시 전자표결과 함께 전광판으로 동시에 의결되는 등 신속·정확하게 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2012년 수원시 의의동으로 청사가 이전하게 될 경우 국회의사당 수준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 지역주민과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추진하였다.

집행부(경기도와 교육청)에 대한 정책 견제와 감시 및 대안 제시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6대 하반기 1,076건 대비 88%가 증가한 2,025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지난 2년 동안 총 9회에 걸쳐 67명 의원이 432건에 달하는 도정청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7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의정활동 성과를 기대하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난 2월 22일 사무처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언론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신선했고 이 조직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의회를 견학하는 도민과 학생들에게 의회 역할과 기능을 안내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홈페이지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해 열람하기 제공, 이용자 편의 위주로 의사일정을 개선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의회에서 의정단 선출, 안전처리 등 소중한 의회 체험과 1일 도의원의 역할을 통해, 민주적 소양 함양 및 다가가는 '열린의회' 모습을 정립했다.

제7대 의회 개원(2006.7월)과 함께 시작된 장마와 태풍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여름철 수해이재민이 발생하자, 회기 중이던 상임위원회를 중단하고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한 후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대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KBS를 통해 태풍 예유니아 수재민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원의 기탁하였고,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였고, 평택지역 마을과는 농촌사랑 1천

1부서 자매결연의 자원봉사, 한나라당 도의원 노인복지관 자원봉사활동 참여,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관련 방재물품 전달 및 자원봉사 참여 등으로 어렵고 힘든 때 도민과 함께 하는 도의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제7대 전반기 도의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 생각하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로 거듭나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제7대 후반기에도 지방의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점수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의회에서 의정단 선출, 안전처리 등 소중한 의회 체험과 1일 도의원의 역할을 통해, 민주적 소양 함양 및 다가가는 '열린의회' 모습을 정립했다.

제7대 의회 개원(2006.7월)과 함께 시작된 장마와 태풍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여름철 수해이재민이 발생하자, 회기 중이던 상임위원회를 중단하고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한 후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대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KBS를 통해 태풍 예유니아 수재민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원의 기탁하였고,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였고, 평택지역 마을과는 농촌사랑 1천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 의용소방대장 한자리에 모여

소방의 영원한 후원자, 변화와 혁신 주제로 교육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7월9일 도내 의용소방대장 3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교육이 실시됐다.

오후 1시부터 6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날 교육에는 김문수 도지사가 '실용의 도정 및 의용소방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고, 텔런트 전원우씨도 '실용의 리더쉽'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지사는 특강을 통해 도시와 확대의 소방대상물의 증가, 전국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밀집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방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후원이 힘입은 바 크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최고의 봉사조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도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 의용소방대 조직의 어려운 현실을 공유하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부족한 소방인력 보충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전담 의용소방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방차량 조작성과 진압훈련 등을 강화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담 의용소방대는 소방력이 부족한 곳에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소방차량과 화재진압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양평군 지평면, 이천시 읍면, 포천시 참수면, 가평군 상면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3대 다발재해예방 릴레이 캠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재삼)은 제148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7월4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금호건설(주)(현장소장 김석호) 남양주 진접택지개발지구 3B, 현장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요원을 사전에 제거하장 장의성),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정장 정영택), 대한산업

안전협회, 협의회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현장근로자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점검 행사 및 3대 다발재해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작업장 근열상대 및 3대 다발(협착·전도·추락)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작업장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상태 확인 등 안전상태에 대한 집중

적 점검이 이루어졌다.

또 이날 행사는 노사자율안전결의대회 결의문 낭독 및 무재해를 위한 구조체감을 통해 안전의식을 재확인하고 향후 5년간 3대 다발재해 50% 감소라는 목표에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신재안전문화 고취를 위한 산재사태 사진 전시, 3대 다발재해 중심의 One Page Sheet 홍보자료 배포, 기념품을 배포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안전을 지키는데 노사가 따로 없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의 준수를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